



| 고엽제 전우회 뉴스 |

## 국회학술세미나를 통해 본 고엽제 전우들의 아픔

### 고엽제 ABC

고엽제란 무엇인가



◇ 작가가 체험한 맹호귀노 밀림지역

고엽제 (Agent Orange)는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이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서 게릴라 소탕을 위해 밀림을 말려버리기 위해 살포되었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운 독물인가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다.

다이옥신은 분해나 용해가 안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와도 10~2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서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

형 유발, 독성 유전 등 각종 후유증을 가져온다.

그 독성은 호르몬 계로 유전되어 2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소각장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생기기 때문에 소각장 300미터 반경 주민들에게는 난방비 지원관리비와 주거개선사업 지원 등을 해줘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중이다.

고엽제 피해자 왜 많은가? 그 숫자와 피해 상황은?



◇ 독극물로 샤워를 했으니...

월남전 고엽제 살포시 지휘관 또는 고엽제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비행기로 고엽제 살포시 우리 국군들은 런닝을 벗고 비행기를 쫓아가며 고엽제를 맞으며 더위를 피했다고 하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1964년 파병부터 1973년 3월 완전 철수까지 9년간 참전자 32만4,800여명 중 2022년 현재 생존자 17만 7천여 명인데 그중 13만5,900여명이 고엽제 피폭 환자로 병을 앓고있는 중이다.

나라의 보상과 예우

어렵도 없는 말이다. 만약 현재 고엽제전우 13만여 명이 죽게 되면 평생 뒷바라지 해주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괴로움을 함께했던 아내와 가족들에게 승계되는 숫자는 불과 2만7,000여 명이고 나머지 10만 8천여 명은 국가와 국민들조차 '나몰라라' 하는 처지가 된다.

국가의 지원 규모

수십 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거나 2세에게까지 전이되는 장기간 독성 보존 특성이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모호한 판정을 두어 그것도 등급으로 나눠놓았다

즉 고엽제후유증 전우 5만741명중 모든 질병치료와 유족승계가 안되는 숫자가 2만2,800여명이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 8만5,889명 중 모든 질병치료 혜택을 못받는 숫자가 66,814명이고 유족승계가 안되는 숫자가 85,889명 전원이다.